스마트하게…백제왕궁박물관 탈바꿈

익산시 1년 공사 마치고 25일 개방
가상체험관·발굴체험실 등 5개 공간
ICT 기술 활용 백제왕궁 정원 재현
지역 최초 개방형 수장고도 신설

백제왕궁박물관이 공사를 마치고 오는 25일 새롭게 문을 연다. 상설전시실 무빙 디오라마 〈익산시 제공〉

익산 백제왕궁박물관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박물관으로 탈바꿈한다.

익산시는 1년간의 공사를 마치고 오는 25일 백제왕궁박물관을 시민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백제왕궁박물관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개방형수장고 ▲가상체험관 ▲발굴체험실 5개의 공간과 교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해 스마트함이 더해진 박물관으로 바뀌었다.

VR, 홀로그램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왕궁리 유적과 유물을 설명하는 상설전시실과 과거 백제왕궁 정원 시설을 재현해 실제로 물이 흐르는 백제정원실은 어려운 유적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조성됐다.

특히 전북지역 최초로 신설된 개방형 수장고는 시민들이 접하기 어려운 문화재의 보관 방법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교육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한 상설전시실에서 가상체험관으로 이동 구간의 전면 유리창은 답답한 마음을 열어주고, 용화산을 품은 왕궁리유적과 제석사지는 일상생활에 지친 사람들에게 힐링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백제왕궁박물관 관계자는 "새롭게 단장한 박물관을 통해 익산의 백제왕궁을 쉽게 이해하고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백제왕궁박물관은 2008년에 개관한 왕궁리유적전시관으로 10여 년간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노후화된 시설을 단장하고 시민에게 백제왕궁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백제왕궁박물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순창군, 경로당·마을회관 148곳 에어컨 점검

여름철 폭염대응 종합대책 마련

순창군이 올여름 폭염으로부터 군민들의 건강을 지키고자 '폭염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순창군은 올여름 순창지역의 기온이 평년 기준인 24℃보다 더 높게 오를 것으로 기상청이 예고하고 있어 지역 현실에 맞도록 20일부터 9월30일까지 '여름철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해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 간 대응 및 협력체계 구축 ▲폭염특보 및 피해발생 시 신속한 통보 및 보고 ▲경로당·마을회관 등 무더위쉼터 정비 및 운영 ▲살수차 및 그늘막 운영 등이 시행된다.

또 기상청으로부터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군민들에게 재난문자 등을 신속히 전파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 외출 자제와 같은 폭염시 행동요령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무더위 쉼터로 관리·운영 중인 경로당 및 마을회관 148개소에 대해 에어컨 작동 여부 확인, 필터 청소, 에어컨 가스충전 등의 냉방기 점검을 6월 중으로 완료해 고령층의 더위 피해를 예방하는 데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순창군 관계자는 "기상이변이 빈번해지면서 올해 여름철 폭염일수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선제적 대책을 수립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군산 방축도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선정

관광공사 25선에 이름 올려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올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이름을 올린 방축도.

방축도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올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이름을 올렸다.

군산시는 옥도면 고군산군도의 섬 방축도가 한국관광공사 선정 2022 여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매년 시즌마다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25곳의 안심관광지를 선정,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누리집에 게시한다.

방축도는 고군산군도의 끝 자락에 위치해 방파제 역할을 한다 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동백숲길과 해변산책로가 어우러진 걷기 좋은 섬으로 유명하다. 2021년 10월 개통된 방축도 출렁다리는 방축도 옆 무인섬인 광대도와 연결된 총 83m의 인도교로 고군산군도 여행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잡았다.

방축도에 들어서면 출렁다리까지 데크길을 통해 트래킹을 할 수 있으며, 출렁다리 위에서는 고군산군도의 명물인 독립문 바위 등 옥도면 말도리의 수려한 경관이 펼쳐진다.

방축도는 새만금방조제와 고군산군도로 연결되어 육지섬이 된 장자도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15분 정도 거리에 위치했으며 배는 하루 2회(성수기 주말 3회) 운항한다.

군산시 관광진흥과 관계자는 "고군산군도의 대표 섬인 선유도와 장자도 여행 시 방축도에 잠시 들러 고군산군도의 수려한 경관을 감상하며 트래킹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시는 2017년 시작된 방축도·광대도·명도·보농도·말도 등 5개 섬을 연결하는 총길이 1278m의 해상인도교 조성공사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해상인도교가 완공되면 고군산군도의 새로운 대표 여행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끼와 재능 발휘하세요

고창군 5월 청소년의 달
어울한마당 등 행사 다양

고창군이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다양한 스포츠와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21일 고창읍성 야외공연장에선 '2022년 청소년의 달 기념 어울한마당 두(DO) 유(YOUTH) 노(KNOW)'가 열린다.

지역 청소년동아리 7개팀과 초청팀 3개팀 등 총 10개팀이 힙합, 랩, 밴드, 브레이크 댄스, 방송댄스 공연을 선보이며 학업에 지친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의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고창군 생활체육테마공원에서 '제3회 고창군 청소년 풋살대회'가 열렸다.

또 '성년의날'인 16일에는 올해 만19세가 된 고창지역 393명에게 "고창군이 스무살 당신을 응원합니다"라는 내용의 축하카드를 발송하기도 했다.

오는 24일과 28일에는 제8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소년문화센터와 고창고에서 '청소년 모의 투표' 행사도 계획돼 있다.

양치영 고창군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코로나19로 움츠렸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 덕과면과 사매면 지역에 특용작물로 재배한 작약꽃이 형형색색 만개했다. 〈남원시 제공〉

남원 덕과·사매면 농가소득 효자 작약꽃 만개

남원 덕과면과 사매면 지역에 식재한 작약꽃이 만개해 농가 소득 향상에 기대가 커지고 있다.

작약은 다년생 식물로 5~6월에 절정을 이룬다. 꽃은 크고 향이 독특한데다 색깔이 알록달록해 관상용으로 많이 이용되며 특히 결혼식 부케로 선호된다.

작약은 약용작물로 뿌리를 달여 먹으면 통증 완화와 혈액순환 촉진 등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품종이 개량되고 고급화가 되면서 부가가치가 상승해 농가의 소득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어 작약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시는 작약을 비롯한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능성 특용작물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2019년부터 매년 1억여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현재 약 520농가 57㏊의 특용작물이 재배되고 있다.

남원시 관계자는 "소규모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신소득 작물로 일손부족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경쟁력을 키워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부산 조경태 국회의원 정읍 명예시민증 받아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차 광주에 온 조경태 의원(국민의힘·부산사하구 을·사진)이 지난 18일 유진섭 정읍시장에게 명예 정읍시민증을 받았다.

명예전북도민이자 명예군산시민인 조 의원은 호·영남 문화교류와 정읍시의 현안사업 추진에 다방면으로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날 명예시민 자격을 얻었다. 조 의원은 또 자연보호 정읍시협의회 (회장 김종길)와 한국문화 예술교류연맹초청 황토현 다원에서 수여하는 감사패를 받은 뒤 동학기념관을 찾아 문병학 기획운영부장으로부터 기념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정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이 '갑오동학운동'으로 표기된 것이 잘못 됐다면 '갑오동학혁명'으로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